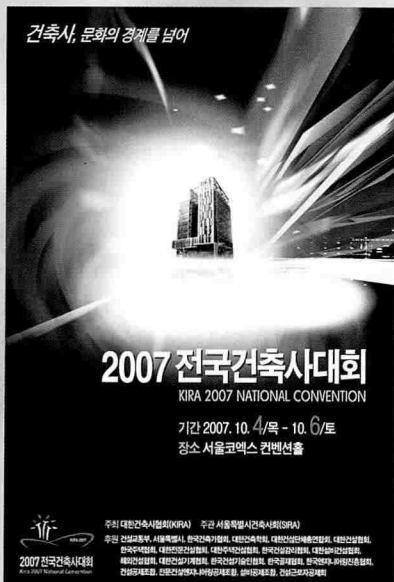


2007 전국건축사대회



2007전국건축사대회가 '건축사, 문화의 경계를 넘어' 라는 주제로 지난 10월 4일부터 6일 까지 3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건축사대회에서는 10월 3일 개최된 전국건축사축구대회를 시작으로 10월 4일 건축사 답사 및 투어, 2007한국건축산업대전 참관이 이어졌으며, 10월 5일 대망의 2007전국건축사대회 개회식과 건축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행사, 세미나, 특별강연, 건축사의 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졌다.

개회식에서는 이용섭 건설교통부장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 정장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 김진애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귀빈이 참석해 '2007전국건축사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자리를 함께 했다. 개회식은 집행위원장인 강희달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의 입장으로 시작돼 각 시·도 건축사회 회장, 본협회 고문·이사·감사와 내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회장인 한명수 우리협회 회장의 입장으로 대회장에 모인 5천여 건축사의 열기는 한층 고조돼 절정에 이르렀다.

이철호 2007대한민국 건축문화대전 조직위원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본 행사는 오프닝 영상과 식전행사인 대북공연 후 송준식 건축사의 건축사헌장 낭독으로 이어졌다. 내외빈의 축사가 끝난 뒤 대한건축사협회 홍보대사에게 한명수 협회장이 위촉패를 전달했으며, 외빈의 건축문화발전을 위한 제언과 건국대학교 오명 총장의 '건축사, 문화의 경계를 넘어' 라는 주제의 특별강연이 끝난 뒤 '건축문화 수호를 위한 대정부 결의문' 이 채택되었다.

우리협회는 결의문을 통해 "우리 대한건축사협회 8천회원은 건축문화의 창이자로서 한국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장설 것을 선언"하며,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시공업체의 설계허용 정책' 이 일부 건설업체에 부여되는 특혜이므로, 이에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며 결의"했다.

이어 2부 행사에서 열린 '건축사의 밤' 행사에서는 방송인 배동성씨의 사회로 연예인 축하 무대와 장기자랑 등이 펼쳐졌으며, 행운의 경품 추첨행사에서는 한명수 협회장이 기증한 자동차, 그리고 주최측이 준비한 노트북 등 많은 경품들이 여러 건축사에게 증정됐다. 끝으로 강희달 집행위원장의 폐회사로써 '2007전국건축사대회'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2007전국건축사대회 행사장 전경



2007전국건축사대회 선포식 전경



대회를 휘날리는 한명수 협회장



이철호 2007대한민국건축문화대제전 조직위원장의 개회 선언



2007전국건축사대회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오프닝 공연



강희달 2007전국건축사대회 집행위원장(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의 환영사



한명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대회사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의 치사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의 축사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의 축사



정장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의 축사



이근창 아시아건축사단체연합(ARCASIA)회장의 축사



한명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홍보대사 위촉



황우여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제언



남경필 한나라당 경기도위원장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제언



김진애 대통령자문 건설기술·건축문화 선진화위원장의 건축문화 발전을 위한 제언



내외 귀빈 기념촬영



오 명 건국대학교 총장의 특별초청강연 「건축사 문화의 경계를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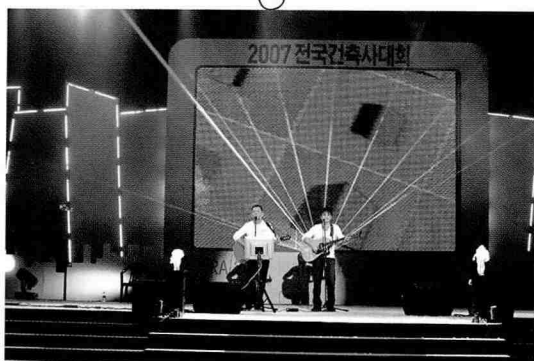
건축사의 밤 행사 중 UIA/PPC공동대표의 축하인사



건축사와 함께하는 사랑의 헌혈행사



건축사의 밤 행사 중 장기자랑



건축사의 밤 행사 중 '사월과 오월'



승용차를 경품으로 당첨받은 회원